



ORIGINAL ARTICLE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

최연숙¹ · 이은희² · 이은주³

¹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간호과학연구소

Self-esteem, Gender-stereotype Activation, Violence Perception, and Date Violence Coping Types among College Students

Choi, Yeon Sook¹ · Lee, Eun Hee² · Lee, Eun Ju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Andong, South Korea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Suwon, South Korea

³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eimyung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gender-stereotype activation, violence perception, and date violence coping types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Two hundred and eleven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in a college in Geonggi-Do.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Measurements for this study were used self-esteem scale, gender-stereotype activation scale, violence perception scale, and date violence coping types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active regulation of date violence coping types, gender-stereotype activation, violence perception, and passive regulation of date violence coping typ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strategy for enhancing self-esteem and violence perception, and decreasing gender-stereotype activation.

Key words: Self Concept, Sex, Students, Violence

주요어: 자아개념, 성, 학생, 폭력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 Lee, Eun Ju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82-53-580-3953 E-mail:11578@gw.kmu.ac.kr

Received: May 2, 2017 Revised: May 22, 2017 Accepted: May 25, 2017

서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며, Erickson [1]의 이론에 따르면 이시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에 해당하는 시기로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이성에 대한 이끌림은 건전한 데이트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서로간의 이상적인 사랑의 기대와 더불어 미래 배우자 선택과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Henton, Cate, Koval, Lloyd와 Christopher [2]는 이 시기를 이성과의 교제와 이상적인 사랑의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데이트의 대상이 되는 상대 이성에게 혼란, 분노, 질투 등의 부정적 정서 표출과 함께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여 데이트폭력을 사회적 문제로서의 인식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실제 여대생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을 연구한 Choi [3]의 연구에서 어릴 적 경험하였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여 이 시기의 부정적 정서 표출이 친밀감이라는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에서 표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다[4]. 실제 경찰청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상해, 폭행, 살인, 강간·강제추행 등이 연간 7000여건씩 발생하며,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7년 7,692명으로 2014년도에 잠시 줄다가 다시 급증하였다[5].

O'Keefe와 Medway [6]는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는 충동성을 포함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데이트 상대에게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데이트폭력행동에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경험 중 심리적·신체적·성적인 데이트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데이트 폭력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성 고정관념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신체적, 사회적 혹은 정신적 측면이 다르다고 미리 예측하고 모든 행동을 규정함으로써 오는 생각의 성에 대한 인식의 일반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7]. 또한 이러한 일반화로 인하여 특히 유교 사상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의 상징 혹은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되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8]. 이러한 성 고정관

념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검증한 Lichte와 McCloskey의 연구[9]에서 남녀관계에서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유교적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가정에까지 이어지며 이는 자녀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관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데이트상황에서 가해행동이 쉽게 허용되는 분위기로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폭력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한다[10]. 이는 폭력상황에 대한 낮은 인식이 폭력상황을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전연구에서 사회가 폭력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개인이 폭력을 인식하는 수준은 낮고, 데이트폭력행동을 실제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이러한 점에서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폭력 인식은 데이트폭력행동 발생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12]. 그러므로 데이트폭력 상황에서 그것을 문제 행동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남녀 간에 일어나는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문제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달려있어 문제 상황에서 폭력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친밀감의 발달 과업 달성을 해야 하는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들의 데이트폭력이 결혼 후에 부부간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데이트폭력 관련변인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졌을 뿐,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관계를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처 행동과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질 것이며,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대처와 중재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성 고정관념과 폭력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기존중의 정도를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3]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Choi [14]가 번안하고 Kim [15]이 수정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이란 성과 관련하여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Park [17]이 Kim [8]의 척도를 신뢰도 계수를 높여 재구성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폭력인식

폭력인식은 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지니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폭력정당화’는 데이트관계에서 신체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신념정도이며, ‘데이트관계신화’는 데이트관계에 있는 연인 간의 비합리적인 잘못된 폭력 신념을 의미한다[12]. 본 연구에서는 폭력인식척도 Gunter [18], Potter와 Warren [19]의 연구를 토대로 Kwak [20]가 구성한 폭력인식태도 1문항과 Lim, Jung, Lee [12]가 5문항을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데이트폭력대처방식

데이트폭력대처방식이란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으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있다. 적극적 대처란 문제 중심 대처로써 문제가 되는 객관적 상황 그 자체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문제해결하기, 정보수집하기, 대안을 선택하고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소극적 대처란 정서중심 대처로서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리두기, 최소화하기, 긍정적인 비유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한다[21,22].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 [21]이 개발한 척도를 Kim [23]가 수정, 보완하고 Ha [22]가 재구성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대처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D대학에 재학 중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회수된 설문지는 273부(91%)였으며,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무응답 등을 한 62명을 제외한 총 211명(70.33%)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에 포함되는 내용은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그리고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3]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Choi [14]가 번안하고 Kim [15]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자기 존

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3, 5, 9)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였다.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은 Park [17]이 Kim [8]의 도구를 신뢰도 계수를 높이기 위해 수정 및 보완하여 3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두 5개의 하위 척도인 가정적 성역할, 사회적 성역할, 직업 및 외적 특성, 지적특성, 사회 심리적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이다. 본 도구의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였다.

폭력인식

폭력인식 도구는 Kwak [20]가 개발한 폭력인식 태도 1문항과 Lim, Jung, Lee [12]가 개발한 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은 폭력 정당화 3문항과 데이트관계신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정당화와 데이트관계 신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Lim 등[12]의 연구에서 폭력 정당화의 Cronbach's α 는 .71로, 데이트관계 신화의 Cronbach's α 는 .6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1였다.

데이트폭력대처방식

데이트폭력대처방식 도구는 Lazarus와 Folkman [21]이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개발한 척도를 데이트폭력대처방식에 맞게 Kim [23]가 수정, 보완하고 Ha [22]가 재구성한 63문항을 사용하였다. 63문항을 문제 중심적 대처 21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6문항, 정서 완화적 대처 25문항, 소망적 사고의 11문항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대처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들 4개의 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요인을 합하여 적극적 대처로 보았고,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요인을 묶어서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4)’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부분의 대처 기제를 많이 사용한 것이다. 질문지 구성 중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과 Ha [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전 일개대학의 각 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학과의 강의 시간을 확인한 후 쉬는 시간 중간에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필요성, 참여의 자발성, 정보의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하였다. 또한 설문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문구류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대처방식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대처방식의 차이를 알기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211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78.7% (166명)였다. 평균 연령은 20.5세이며, 학과는 보건계열, 비보건 계열이 각각

61.1% (129명), 38.9% (82명)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6.4% (119명)로 높았으며, 현재 교제유무는 예, 아니오 각각 29.9% (63명), 70.1% (148명)로 나타났다. 이성교제경험은 없음, 1~3명, 4~6명, 7~9명, 10명 이상이 각각 22.7% (48명), 41.2% (87명), 25.6% (54명), 7.6% (16명), 2.8% (6명)이었으며, 데이트폭력경험은 가해경험 있다, 피해경험 있다, 없다가 각각 1.4% (3명), 3.8% (8명), 94.8% (200명)이었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및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90점이었다. 자아존중감에서 선행논문과 비교하기 위한 평균점수는 총점 40점 만점에 평균 29.01점이었다.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폭력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51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평균 점수는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 각각 4점 만점에 2.25점, 2.16점이었다.

세부사항을 보았을 때, 첫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서 가장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었고(3.21±0.56),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 각 하위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2.00±0.65).

둘째,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분석결과 '여자는 남자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쓴다'가 가장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이었고(3.38±1.18),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은 동등해야한다'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1.51±0.86).

셋째, 대학생의 폭력인식에서 폭력 정당화문항에서는 '뺨 때리거나 발로 차는 정도의 폭력은 용서받을 수 있다'가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고(4.69±0.63), 데이트관계 신화문항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 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이었다(4.74±0.61).

넷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방식영역에서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세운다'이었고(3.18±0.73), 가장 낮은 항목은 '내가 문제를 자초했음을 인정한다'이었다(1.88±0.94). 소극적 대처방식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의 문항이 가장 평균점수가 높게 나왔고(2.87±0.86), 가장 낮은 항목은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이었다(1.47±0.7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나이는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75, p<.018$). 23세 이상의 평균점수 3.07점, 23세 미만의 평균점수 2.86점으로 23세 이상인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교제 유무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08, p<.013$). 현재 교제 유무에 '예'라고 답한 학생의 평균점수 3.02점,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의 평균점수 2.85점으로 '예'라고 답한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성 고정관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451, p<.001$). 남자의 평균점수 2.30점, 여자의 평균점수 1.95점으로 남자의 성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나이는 성 고정관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37, p<.005$). 23세 이상의 평균점수가 2.30점, 23세 미만의 평균점수가 1.98점으로 23세 이상인 성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과는 성 고정관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11, p<.003$). 보건계열의 평균점수 1.93점, 비보건 계열 평균점수 2.18점으로 비보건계열의 성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인식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인식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폭력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06, p<.020$). 남자의 평균점수 4.31점, 여자의 평균점수 4.56점으로 여자의 폭력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5	21.3
	Female	166	78.7
Age(yrs)	<23	178	84.3
	≥23	33	15.7
Major	Health science	129	61.1
	Non-health science	82	38.9
Religion	Christ	64	30.3
	Catholic	22	10.4
	Buddhism	6	2.8
	No religion	119	56.4
Current status of being in relationship	Yes	63	29.9
	No	148	70.1
	None	48	22.7
Experience of being in relationship (number of people)	1-3	87	41.2
	4-6	54	25.6
	7-9	16	7.6
	≥10	6	2.8
	Being perpetrator	3	1.4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Being victim	8	3.8
	Not applicable	200	94.8

Table 2. College Student's Self-esteem, Gender, Violence, and Coping Types

(N=211)

Categories	Mean±SD	
Self-esteem	2.90±0.46/4.00	
Gender stereotype	2.02±0.61/5.00	
Perception of violence	4.51±0.49/5.00	
Coping types	Active coping	2.25±0.38/4.00
	Passive coping	2.16±0.44/4.00

Table 3. Difference in Self-esteem, Gender Stereotype, Perception of Violence, and Coping Types Regarding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steem		Gender stereotype		Perception of Violence		Coping types of dating violence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Gender	Male	45	2.99±0.45	1.604	2.30±0.62	3.451	4.31±0.66	-2.406	1.96±0.30	2.002	3.04±0.57	2.067
	Female	166	2.87±0.45	(.110)	1.95±0.58	(.001)	4.56±0.42	(.020)	1.87±0.27	(.047)	2.84±0.58	(.040)
Age (yrs)	<23	178	2.86±0.45	-2.375	1.98±0.59	-2.837	4.52±0.50	0.913	1.86±0.27	-3.868	2.82±0.57	-3.845
	≥23	33	3.07±0.40	(.018*)	2.30±0.61	(.005*)	4.43±0.43	(.362)	2.06±0.29	(<.001)	3.23±0.53	(<.001)
Major	Hygiene	129	2.87±0.47	-1.173	1.93±0.57	-3.011	4.55±0.47	1.805	1.86±0.26	-1.783	2.78±0.56	-3.250
	Non-hygiene	82	2.94±0.42	(.242)	2.18±0.61	(.003*)	4.43±0.50	(.072)	1.93±0.30	(.076)	3.04±0.58	(.001)
Religion	Christian	64	2.94±0.47		2.18±0.57		4.45±0.49		1.94±0.25		2.98±0.57	
	Catholic	22	2.95±0.36	1.128	1.90±0.54	2.125	4.53±0.47	1.195	1.91±0.29	1.193	2.96±0.47	1.198
	Buddhism	6	2.61±0.31	(.339)	2.12±0.80	(.098)	4.83±0.25	(.313)	1.89±0.25	(.313)	2.80±0.57	(.312)
Current status of being in relationship	None	119	2.88±0.46		1.97±0.61		4.52±0.49		1.86±0.29		2.82±0.61	
	Yes	63	3.02±0.49	2.508	2.01±0.57	-0.296	4.54±0.40	0.603	1.91±0.28	0.645	2.82±0.61	-1.066
	No	148	2.85±0.42	(.013)	2.04±0.61	(.768)	4.49±0.52	(.547)	1.88±0.28	(.520)	2.91±0.57	(.288)
Experience of being in relationship	None	48	2.83±0.45		1.92±0.59		4.43±0.56		1.84±0.27		2.84±0.63	
	1-3	87	2.94±0.48		2.00±0.62		4.55±0.48		1.94±0.28		2.94±0.60	
	4-6	54	2.91±0.38	0.883	2.07±0.55	1.944	4.48±0.49	0.580	1.86±0.26	1.101	2.83±0.54	0.393
	7-9	16	2.90±0.52	(.475)	2.17±0.66	(.104)	4.57±0.33	(.677)	1.89±0.36	(.357)	2.86±0.53	(.813)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10	6	2.65±0.37		2.56±0.60		4.50±0.34		1.86±0.24		2.96±0.49	
	As a perpetrator	3	2.93±0.70		2.31±0.27		4.33±0.44		1.89±0.42		2.91±0.58	
	As a victim	8	2.81±0.45	0.163	2.40±0.51	1.913	4.33±0.30	0.759	2.02±0.13	0.830	3.51±0.33	4.927
	Not applicable	200	2.90±0.45	(.850)	2.01±0.60	(.150)	4.52±0.49	(.469)	1.88±0.28	(.437)	2.86±0.58	(.008)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Gender Stereotype, Violence, and Coping Types

(N=211)

Categories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r (p)	r (p)
Self-esteem	.145(.036)	-.044(.530)
Gender stereotype	.025(.714)	.317(<.001)
Perception of violence	.060(.389)	-.172(.0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적극적 대처($t=2.002, p<.047$)와 소극적 대처($t=2.067, p<.04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에서 남자의 평균점수는 1.96점, 여자의 평균점수는 1.87점으로 남자가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에서 남자 평균점수는 3.04점, 여자 평균점수는 2.84점으로 남자가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나이는 적극적 대처($t=-3.868, p<.000$)와 소극적 대처($t=-3.845, 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에서 23세 미만 평균점수 1.86점, 23세 이상 평균점수 2.06점으로 23세 이상이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에서 23세 미만 평균점수 2.82점, 23세 이상 평균점수 3.23점으로 23세 이상이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과는 소극적 대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50, p<.001$). 소극적 대처에서 보건계열의 평균점수 2.82점, 비보건계열의 평균점수 3.04점으로 비 보건계열이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경험은 소극적 대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27, p<.008$). '가해경험 있다'에 답한 경우의 평균점수는 2.91점, '피해경험 있다'에 답한 경우의 평균점수는 3.51점, '없음'에 답한 경우의 평균점수는 2.86점으로 '피해경험 있다'에 답한 경우가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45, p<.036$)를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적극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과 소극적 대처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17, p<.000$)를 보였다. 따라서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인식과 소극적 대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72, p<.013$)를 보였다. 따라서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동시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총점 40점 만점에 평균점수 29.01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15]의 연구결과 30.37점 보다 낮은 점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5점 만점에 23세 이상은 3.07점, 23세 미만은 2.86점으로 23세 이상이 23세 미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교제유무에서는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점수가 3.02점으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평균점수 2.8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학과, 종교, 이성교제경험, 데이트폭력 경험은 결과 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Kim [15]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총점만 다루었기 때문에 개별적 특성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평

균 2.02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2.30점으로 여자의 평균점수인 1.95점보다 높아 남자가 여자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17]과 Yoon [2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나이에 따른 차이에서는 23세 미만의 평균점수 1.98점, 23세 이상의 평균점수 2.30점으로 나이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Park [17]의 연구에서 20세 이하의 평균점수 2.26점, 21-22세의 평균점수 2.31점, 23세 이상 평균점수 2.58점으로 23세 이상이 성 고정관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Choi [3]에 따르면 성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적었고, 성 고정관념을 암묵적, 명목적인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폭력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성이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31점, 여성이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56점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5점 만점에 4점을 넘은 점수로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Ha [22]의 선행 연구 결과인 남성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04점, 여성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40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이는 최근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사회적 문제로 자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연령, 학과, 종교, 현재 교제유무, 이성교제 경험, 데이트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인식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결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에서 적극적 대처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52점이며, 소극적 대처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16점이었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인식과 대처에 관해 연구한 Ha [22]의 연구결과에서 적극적 대처 2.46점, 소극적 대처 2.15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보면, 적극적 및 소극적대방식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방식에서 남자의 평균점수는 1.96점, 여자의 평균점수는 1.87점으로 4점 만점에 중간점수 2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02$). 소극적 대처방식에서는 남자의 평균점수는 3.04점, 여자의 평균점수는 2.84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소극적 대

처방식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7$). 즉 남자가 여자보다 적극적 및 소극적 대처 양 측면을 모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Ha [22]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나이와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방식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방식에서 23세 이상이 23세 미만보다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방식에서는 23세 미만에서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845$). 즉, 23세 이상이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 양 측면을 모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소극적 대처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25]에 따르면 남·여대학생 모두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보건계열과 비보건 계열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차이를 보았을 때, 소극적 대처방식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보건계열의 소극적 대처방식의 평균점수는 2.78점, 비보건 계열의 평균점수는 3.04점으로 비보건 계열 학생이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3.250$). 이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차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 경험에서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극적 대처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다'에서는 평균점수가 2.91점으로 나타났고, '피해경험 있다'에서는 평균점수 3.52점, '없음'에서는 2.86점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경험 있다'에게서 소극적 대처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4.927$). 이는 Kim [25]에서 폭력을 경험한 경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종교, 현재교제유무, 이성교제경험에서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적극적 대처, 성 고정관념과 소극적 대처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인식과 소극적 대처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적극적 대처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Ha [26]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높은 자존감은 개인이 선택하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적극적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고정관념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소극적 대처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고정관념이 확고한 대학생의 경우 소극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Yoon [24]의 연구에서도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회피 성향이 높았고, Kim [25]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의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a [22]의 연구에서 폭력인식은 적극적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으며, 소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식이 높으면 소극적 대처 또한 낮다는 의미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을 막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이 대학 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성역할 풍토 조정을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수원시에 소재한 D대학교 보건계열, 비보건계열 대학생 211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성 고정관념 30문항, 폭력인식 6문항,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63문항으로 총 116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8월 29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40점 만점에 평균점수 29.01점이었으며, 성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대체로 평균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폭력인식은 남녀 모두 5점 만점에 4점을 넘어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D대학의 보건 및 비보건 계열 재학 중인 학생 중에 211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 대처에 관해 피해 대학생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한다면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피해 경험을 조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경험이 없다’가 94.8%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후 다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나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성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대상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고 현실적으로 데이트폭력에서 여자가 피해가 되는 사례가 더욱 우세하지만, 성문제,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에 대한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관련 문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

-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Christopher S.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 Family Issue* 1983;4(3):467-82.
<https://doi.org/10.1177/019251383004003004>
-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1993.
- Choi YK. A Study of The Effect on Family Violence of Women with College Degrees on Dating Violence : The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 on Explicit and Implicit Gender Stereotypes[master's thesis]. Chungnam: Konyang

- University: 2001. p. 1-89.
4. Seo KH, Kim BJ, Jung GC, Kim SS.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 2001;2(1):75-97.
 5. Lee JH. Dating violence is a crime not a love quarrel: Actively report so to reduce the victims[Internet]. Seoul: Segye Ilbo; 2017. Available fr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4/02/20170402001665.html?OutUrl=naver>
 6. O'Keefe DJ, Medway FJ. The application of persuasion research to the school psychology context. *J School Psycho.* 1997;35:173-93. [https://doi.org/10.1016/S0022-4405\(97\)00004-6](https://doi.org/10.1016/S0022-4405(97)00004-6)
 7. Sul DH. Marriage migrants of Korea. *KMA* 2006;1-17.
 8. Kim D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Authoritarianism. *RIKC.* 1993;63(2-3):45-58..
 9. Lichte EL, McCloskey LA.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 Women Q.* 2004;28:344-57. <https://doi.org/10.1111/j.1471-6402.2004.00151.x>
 10. Hong MR. Gender Sensibility and Violence against Wives in Everyday Life: How Do the Victims Realize and Resist Common Violence[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2005. p. 1-143.
 11. Riggs DS, O'Leary KD, Breslin FC.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 Interpers Violence.* 1990;5:61-73. <https://doi.org/10.1177/088626090005001005>
 12. Lim CY, Jung SY, Lee MS.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 Community Welfare.* 2010;35:147-79.
 13.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4. Choi JA. The Influence of Self Consciousness and Self-Esteem towards the Attitude of Consultation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1996.
 15. Kim SY.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Tendenc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Focused on th APS-R (the Almost Perfectionism Scales-Revised)[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5. p. 1-78.
 16. An ES.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master's thesis]. Daejun: Eulji University. 2010. p. 1-75.
 17. Park YJ. A study on College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 Its Relationship to Sex Stereotype and Self-Consciousness[master's thesis]. Seoul: Sogang University. 2000. p. 1-66..
 18. Gunter B. *Dimensions of Television Violence.*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5.
 19. Potter W, Warren R. Humor as camouflage of televised violence. *J Commun.* 1998;48:40-57.
 20. Kwak JH. A Study of the Viewer's Violence Perception and the Context Dimensions on Media Violence.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2001. p. 6-28.
 21.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22. Ha YJ. A Study on Perception and Coping of Dating Violence: Focusing on Dating Violence Vignette [master's thesis].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4.. p. 1-92.
 23. Kim JH. Organizing factors of stress coping types scale. *KPAA Conference.* 1985;1:37-43.
 24. Yoon JW. A Study about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Parental Conflicts,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the Gender-Role Stereotypes and the Conflict Coping Behaviors[master's thesis]. Seoul: Sungshin University. 2008. p. 1-97.
 25. Kim JR.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master's thesis]. Gwangju: Chonman National University. 1999. p. 1-126.
 26. Ha JE.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Focused Coping and Avoidance Coping[master's thesis]. Daegu: Daegu University. 2014. p. 1-60.